



## 장인정신의 자존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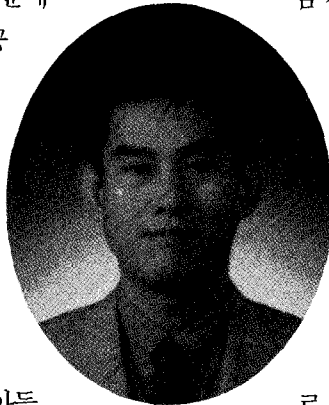
### 고객 만족 세계적 기계 만들터

김종백 / 대진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제** 5회 「한용교포장인상」수출 부문에서 수상한 김종백 대진기계공업(주) 대표이사는 인터뷰를 하는 시종일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상을 대진기계공업(주)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장업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수상의 영광을 포장인들 모두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더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백 사장이 포장기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쇄기계 부대시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부터였다. 그는 인쇄기계에 매력을 느꼈고, ‘내가 일생동안 다른 부분은 남들에게 뒤떨어지더라도 기계를 만드는 기술만큼은 절대로 뒤쳐지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대진기계공업(주)을 창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무일푼으로 건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김 사장은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든 순간은 존재하며 그럴 때 스스로 극복하는 자만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굳은 생각으로 결코 주저않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생각과 내가 만든 기계가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스로를 ‘엔지니어’라고 칭하는 김종백 사장은 ‘엔지니어’ 인생인 자신의 삶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는 기계를 만들 때 항상 고객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

“기계를 만드는 것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해 내는 개발입니다. 즉, 기계는 그 브랜드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보고 내 자신이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는 기계는 좋은 기계가

## “고객만족 · 고객우선의 마케팅 전략”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바로 커스토머(customer)들이 인정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종백 사장의 기계에 대한 자부심은 해외에 수출을 할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기계를 수출 할 때 그는 '대진기계공업(주)'이라는 브랜드를 넘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한다. 포장기계를 수출하면서 단순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인 것이다.

“수출이라는 것은 장인정신이 없이 자신의 이익만 염두해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는 김 사장의 이런 신념은 360만불 수출, 압출라미네이터 특허 출원 및 Q마크 획득, 최근 3년간 20%이상 성장,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게 했다.

김종백 사장은 현재 대진기계공업(주)에서 영업사원 없이 모든 영업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혼자서 영업을 해도 이체는 여러 고객들이 기계를 인정해주니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는 “대진기계공업(주)의 기계들이 제 몫을 잘 해내며 국내외 업체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한 기분이 든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김 사장은 “모든 마케팅은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고가장비인 기계를 판매할 때 터무니없는 가격에 일단 계약하는 것보다 기계의 좋은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적절한 커스토머(customer)를 기다리는 것이 영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기계 가격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처음 기계를 판매할 때는 영업의 노하우에 미숙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기계 한 대밖에 못 판다해도 기계 브랜드의 자존심은 꼭 지키고자 노력한 것이 오늘날 매출을 늘리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김종백 사장은 마케팅 체계가 자리잡힌 올해 2-30%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또한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최종 목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계를 개발하는 일이라며 당차게 열의를 표하는 김종백 사장...그는 “고객 우선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